

민주號 위기감 고조... 세력 분화 조짐

사상 최악 지지율 기록 속 '당 쇄신론' 급부상 '민주연대' 활동 개시...중진·원로 비판도 잇따라

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8.4%(한길리서치)라는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참패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쇄신론 속에 세력 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김근태 전 의원, 천정배 의원 등 진보·개혁 세력이 주도하는 민주연대가 다음달 2일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최규상·이종걸·박영선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비주류 연합체는 현 지도부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반기를 들며 '야당 내 야당'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걸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주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보다 아직 민주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화두라고 생각할 정도가 됐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이탈된 계층들로부터도 민주당은 전혀 주목의 대상이 못되고 있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그는 정세균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로서 보여준 게 없다"고 혹평했다.

우원식 민주연대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저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0%다. 이는 야당다운 야당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당의 태도가 국민에 실망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재균·이종걸·강장일·문학진·주승용·장세환·안규백·김재균·이춘석·최문순 의원 등 9명의 개혁성향 의원들도 지도부의 현안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같은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9인 모임'을 발표했다.

김재균 의원은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임"이라며 "야성을 회복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선명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과 원로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은 지난 25일 당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민주당도 부가처세 인하 주장을 거둬들이자"며 당론과 배치되는 언급을 내놓았다.

그의 발언을 놓고 향후 당 정체성 논쟁이 '견제야당' 대 '대안야당'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을 예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향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정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노선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세력 분화 조짐은 지도력의 심각한 누수로 이어져 최근 지방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절반 이상이 불참하는 등 지도부 회의의 참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정 대표는 다음 주 당내 원로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우선 내달 1일 60세 이상 의원 모임인 '민주 시니어'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어 3일에는 전직 국회의장, 총리, 당 대표 등으로 이뤄진 상임고문단과 최고위원단과 연석회의를 열어 고문단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고문단이 꾸려진 지난 9월 이후 처음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정부, 남북관계 의도적 파탄"

강기갑 대표 예방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27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자택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예방을 받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발 3000' 정책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훈 대변인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무슨 수로도 (지금까지의 대북관계를) 역행하지 못하며 만약 역행한다면 김영삼 정부 시절의 통미봉남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해 지지율이 올라가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을 때 '북측에 중요한 두가지가 안전보장과 경제살리기인데 이를 보장할 나라는 미국 밖에 없는 만큼 미국과 관계정립을 하라'고 말했다"

면서 "북한의 최대 소원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오바마 정권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살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며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우리가 덕을 본다"면서 "북측에 '퍼주기'한다고 하지만 '퍼오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들어 국민 전체가 지식인이 된 상황에

서 독재는 있을 수 없다"며 "민노당과 민주당이 굳건히 손잡고 시민단체 등과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정부는 안하고 민간은 해도 된다는 것은 사람을 우롱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민주 "예산 강행 땐 계수조정 보이콧"

선진 "예산안 재수정 해야"

민주당은 27일 정부 여당이 계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소위 심사작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우재창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 2%대 전망과 부가감세 강행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 5조6천억원대의 지방재정 감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결여된 '4대 무대책' 예산"이라며 "명확하고 현실적인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계수조정소위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으면 내년 초 추경예산 문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다시 예산을 내놔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동조한다"며 "그러나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계수조정 심사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구성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위원장을 맡을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과 이사철 의원 등이 참여한다.

또, 민주당에서는 조영택, 우재창, 전병헌, 오세재 의원 등 4명이 예결소위 위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조영택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계수조정소위는 내달 1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시도의장協 "지방소득·소비세 법안 전폭 지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찬 경북도의회 의장)는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부세 개편과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내년에만 3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의 자

주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 법안은 금년 정기국회 내에 원안과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을 시행할 경우에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근본적인 보전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반드시 시도지 사협의회 등 지방단체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25일 국회인 부가처세 20%를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및 부가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곽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곽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야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동파
곽내영 선생 저지직강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net

에듀뷰넷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 바뀐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수강 문의 광주 (대)529-009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인명명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번외형 수강 등록시" 주부반·성인반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간반,야간반)

직장인용 위한 교육보험 환과과정
국비지원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합정점 ☎ 971-0002 (구비로 합정점 옆 광주은행 4F)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월 1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목표점점 개원 12월 1일 개강예정
목포해운대 대성학원 건물 3층
☎ 061)277-8111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45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필요로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학장이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無等은 지금도 옛 명성 그대로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믿음듣고있다.(청강한영) =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 행정관공무원검정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전호지방술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합격설명회, 매일09~19시까지-

'09년 시험안내

시행일자: 9월 4일, 11월, 7월 25일 시행
채용인원: 국가직 3,200명 모집-지방직 예산수준
충정공무원시험에 내년 1월 1일부터 부후 동시시험 연립제

개강 12월 1일(주,아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 (교재17만원포함)
주·야간반+기초(美·圖) 무료제공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신함.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고 후문앞) ☎ 222-4560

www.mdgosl.co.kr